

# 제 140회 KMA LEADERS FORUM 강연 요약

일시 : 2019년 12월 05일 (금) 06:40~09:00 장소 :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(하모니볼룸)

## SPEAKER 최장순 엘레먼트컴퍼니 대표



- 현) 엘레먼트컴퍼니 대표
- 현) 플러스엑스 전략총괄이사
- 전) 브랜드앤컴퍼니 이사
- 주요 프로젝트 : 인천국제공항, 삼성전자, GUCCI, 알리페이, 현대자동차, 이마트 등
- 저서 : 기획자의 습관, 본질의 발견

## 본질의 발견, 숨은 의미를 읽어내는 기획!

### 1. 다양한 시선을 가져라

-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족에서는 동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동물에 꼬여 있는 많은 파리 떼가 사람에게 옮겨가는 현상 발생. 즉, 부족 사이에서 파리떼는 곧 부의 상징으로 여겨짐. 서구권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'위생적이지 않은', '안타까운' 느낌을 주는 이 현상은 부족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됨. 숨은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음.

### 2. 대상의 주변에서 단서를 찾아라

- 미국의 한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성공 비결로 집을 팔기 위해 "집을 팔지 말고 빵을 구우라"고 조언함. 집을 팔 타겟에게 빵 냄새를 맡게 하면 그 타겟은 '그 집에서 산다면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빵을 구우며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것'이라는 판타지를 갖기 때문. 때로는 비언어적 코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 있음. 이처럼 대상을 관찰할 때 대상의 라이프스타일, 가치관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야 함

### 3. 기획의 단서는 시간점유율에 있다

- 우리는 단순이동을 위해 1시간 39분을 사용함. 하지만 자율주행이 일반화될 경우 미래의 자동차는 이동 시간 이상을 소비하며 삶과 함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임. 이에 착안하여 엘레먼트컴퍼니는 모 자동차의 비전을 '고객의 24시간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, 예측, 대응할 수 있는 차 이상의 것'으로 정의하고 'beyond the car'를 동 자동차 생산개발본부의 비전으로 내세움.

### 4. 업의 본질을 재정의하면 혁신이 나온다

- 업의 본질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음. 예를 들어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공시생에게 카페는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, 디자인 회사 근처에 위치한 카페는 디자이너들에게 스마트한 워크 지원 공간이 될 수 있음.
- 혁신적 컨셉을 정하기 위해 '업의 본질을 정의하기 → 고객 경험상 문제점 정리하기 → 실질적 해결 방안 마련하기 → 전율을 일으킬 컨셉 도출하기'의 과정을 거친다면 '우리만의 강력한 컨셉'을 찾을 수 있음.

# 제 140회 KMA LEADERS FORUM 현장스케치

일시 : 2019년 12월 05일 (금) 06:40~09:00 장소 :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(하모니볼룸)



## 최장순

엘레멘트컴퍼니 대표

KMA LEADERS FORUM

